

농업법인 소득세 5년간 면제

비농민 출자한도 75%로 대폭확대

내년부터 5년간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 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지원 주요 내용=올해 지방세법을 개정, 농업소득세 부과를 내년부터 5년간 중단하고 국제인 일반소득세율보다 높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농업경영체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고려, 농업법인이 창업 이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

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현재 법인세 부과 최저한도(최저한세 15%) 적용 조항을 삭제해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작물재배업의 법인세 부과 최저한도를 현재 15%에서 10%로 낮춰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가 운용중인 농업관련 공기업을 농업

회사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업인 지분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진입제한을 낮출 방침이다. 전문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위주의 대표이사, 집행이사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불로초 장수촌' 관광파크 추진

제주도 서귀포시, 약용식물 재배시험장 유치

제주도 서귀포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아열대 약용식물 재배시험장 유치를 계기로 30ha 규모의 한방관광 '불로초 장수촌'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식약청과 대한한의사협회,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주하이테크진흥원 등과 협동 지원체계를 구축, 농업관광과 건강뷰티산업이 연계된 차별화된 한방산업 발전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3천300㎡ 규모의 약용작물 시험 전시포장을 만들어 농업인의 한방산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3.3㎡당 5천원 이상 조수입이 예상되는 약용작물을 선정, 감귤대체작목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식약청 시험장이 들어서면 영천동 일대 30ha에 생약초 재배단지(10ha), 가

공시설 등을 갖춘 한방관광파크인 '불로초 장수마을'을 조성해 주변의 돈내코관광지, 감귤랜드와 연계된 관광 동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식약청 공무원과 한의사,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한방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생강 소포장 출하 적극 추진

농협 전국협의회 ... 공동브랜드 개발도

상장애외품목으로 20kg 종이포대 출하가 일반적인 생강의 산지 소포장 출하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전국적인 생강 공동브랜드가 곧 개발돼 생강의 유통환경 개선과 국산 생강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 생강전국협의회(회

노루오줌, 능소화, 기린초, 지황, 당귀 등 500여종이 넘는 국내 약용식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농촌진흥청 약용식물원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농진청 작물과학원에 2002년 조성된 약용식물원은 8천㎡ 규모로, 2천500㎡의 약용식물원과 2천㎡의 약용수목원, 약용식물 유전자원 보존포 3천500㎡로 구성됐다.

"약용식물원으로 놀러오세요"

농진청은 5월부터 9월까지 약용식물원을 일반에 개방하며 단체 견학의 경우 담당 연구자가 직접 식물원을 안내, 국내 약용식물의 재배 환경과 효능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농진청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약용식물을 수집, 재배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초 건강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루오줌과 기린초 등의 약초가 최근 개화기를 맞아 활짝 꽃을 피워 약용식물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며 "보는 즐거움에 약초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약용식물원은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학 문의 ☎ 031-290-6819)



'제1회 함양 산삼축제'

이달19~20일 개최

경남 함양군(군수 천사령)이 19~20일 '제1회 함양 산삼축제'를 연다.

함양군은 올해 봄에 벌써 300만 포기분의 산삼 씨앗을 뿌려 놓고 세계 최대의 산삼 재배지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산삼관련 학술대회, 산삼찾기대회, '산삼관련제품 전시판매'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055-960-5741.

모든 농협들은 1kg·4kg·10kg 등 소포장으로 작업, 출하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산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협의회 소속 농협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강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2004년도 하반기 수급조절물량 결정

수급조절품목 중 백출(500톤), 창출(300톤), 적수오(50톤), 시호(200톤), 지황(1,000톤)이 수입결정됐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7월8일 제56차 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수입량을 결정하고 요건확인기한을 백출, 창출, 적수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호, 지황은 내년 4월30일까지, 통관기한은 2005년 6월30일까지로 장기화했다. 또한 시호, 지황, 백출은 요건확인시 생산농가 지원금으로 kg당 20원과 수급조절운영기금 1\$당 10원씩 납부하고, 창출 적수오는 수급조절운영기금 1\$당 10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이젠 생약초로 웰빙하세요"

장흥군, 건강생약초 휴양랜드 조성

전남 장흥군이 생약초만으로 가꾼 독특한 휴양림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장흥군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리효과가 탁월한 이 지역 약초를 이용해 약초재배단지와 약초공원 등으로 이뤄진 '건강 생약초 휴양랜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생약초 휴양랜드는 장흥군 일대에 30만평 규모로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 250여종의 각종 자생 약초와 야생화를 가꿔 보

성 녹차밭의 경관에 뒤지지 않는 자연상태의대규모 약초 군락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 5만평 부지에 휴양객들이 맘껏 약초를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쉴 수 있도록 첨단유리시설과 건조 및 가공시설, 자연학습장, 생약초 허브공원을 갖추기로 했다.

약초재배를 연구하는 연구단지와 세미나실 등을 갖춘 약초교육시설은 물론 약초와 관련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장까지 들여 놓을 예정이다.

장흥군은 올 하반기 장동·용산면 6만평 부지에 약초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약초휴양랜드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며 2007년까지 모두 60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배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외부업체 회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해결하기로 최근 J약품과 계약을 체결했다.

장흥지역은 북·남방 한계선에 위치해 고랭지 약초가 자생하는 등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데다 토질도 대부분 사질토나 황토질로 몸에 이로운 유효화합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약초가 많다고 해서 '약다산(藥多山)'이라고 불린 부용산 등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보다 약리 효능이 탁월해 전남대 약학대학과 동신대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생약초 재배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흥군 김후덕 농정과장은 "생약초 휴양랜드 조성 사업은 올초 지방정부 산업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며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농가소득은 물론 인근의 강진청자나 보성녹차 등과 연계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